

부활절 두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OF EASTER

주후 2022년 4월 24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50 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통일 24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7 번 시편 (Psalm) 29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	--------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Matthew) 28:1-10	고지현 집사
-------------------------	-----------------------	--------

찬 양 Anthem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대
------------	----------------	-----

설 교 Korean Sermon	“갈릴리로 가라” (Go to Galilee)	김일선 목사
-------------------	------------------------------	--------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마음이 상한 자를”	다같이
-----------------------	-------------	-----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	--	-----

봉 헌 Offerings		다같이
---------------	--	-----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	-----------------------------------	-----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	--	-----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	--	-----

*찬 송 Hymn	528 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통일 318)	다같이
-----------	---------------------------------	-----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	--	--------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거짓 앞에서 침묵했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며 무기력하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은 사데 교회와 너무나 비슷했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다”는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한 죄성과 세상적인 욕망을 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삶이 하나되는 참된 부활 신앙으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 68, 계 24, 계 3:16)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개역개정 **마28:10**)

“Then Jesus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Go and tell my brothers to go to Galilee; there they will see me.’” (NIV **Matthew 28:1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24 (주일)	4/25 (월)	4/26 (화)	4/27 (수)	4/28 (목)	4/29 (금)	4/30 (토)
	민1	민2	민3	민4	민5	민6	민7
본문	시35 전11 딤후3	시36 전12 문1	시37 아1 히1	시38 아2 히2	시39 아3 히3	시40,41 아4 히4	시42,43 아5 히5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4/27수 오후7:30)	“예수님의 생애” (사 96, 533-7) – 김강석 장로
토요 새벽기도회 (4/30토 오전6:30)	“율법을 들으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시 78:1-8)

지난 주일(4/17, 부활주일) 말씀 –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13)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19-26)

오늘 본문(고전15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없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졌 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부터,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 2:22)고 말씀했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행17:31)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바로) 성경의 절기상 ‘첫 이삭의 절기’로 알려진 ‘초실절’로서,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부활이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제 부활의 첫 테이프를 끊으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도 부활 이후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